

이상미에 따른 여성 속옷 구성에 관한 연구(2) - 20세기 후기를 중심으로 -

김 지 연* · 전 혜 정**

한양여대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 · 서울여대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Women's Underwear Structures by Ideal Beauty - Focused on the late period of 20th century -

Jee-Yeon Kim* · Hei-Cung Chun**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eoul Women's University**

(2003. 3. 19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survey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20th century and women's status, and to identify what the ideal body is like and what the elements of outer garment and underwear are and the techniques to incarnate the ideal beauty. Various papers are referenced for theoretical study and the elements and techniques of underwear are analyzed based on photographical material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In 1960's, ideal beauty was small bust, long legs, which showed extremely slim Mini-skirt look. Thinly or no padded brassière were worn for small bust, and pants-style short panty girdles were popular as they used to wear pants frequently. Lycra replaced all the closures, bones, seams and gave freedom with light weight.

In 1970's, a natural human body without sex specific was in vogue. Therefore, the non-structural knits without a pad or lining or the shirts dress were widespread for a Natural look and the naturally molded brassière or girdles were worn as the underwears.

In 1980's, the women with powerful muscle appear which emphasized liveliness and healthfulness. The body conscious represented by wide shoulder, plump breast, accented waist, small hips, and long legs has been embodied. Outer garments emphasized women power and healthy beauty with Power suit and Form-fitting style, and underwears made the breast plump with padded brassière and emphasized waist and hips with waspie.

In 1990's, ideal beauty was slim body with big bust and the outer garments emphasized body line of women with Hourglass silhouette. Push-up bra which emphasizes the valley of breast and supports the breast upward and the control tights for slim waist, flat abdomen, small hips, and long and slim legs have been useful as underwears. Multi-functional micro-fiber has been ideal for sculpting women body.

Key words : Ideal of beauty(이상미), Outer garment(겉옷), underwear(속옷), Corset(코르셋), Brassière(브래지어)

I. 서론

여성의 이상미를 이루기 위한 복식 연구는 겉옷 뿐 아니라 그 근본을 이루는 속옷의 역할을 이해함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완벽한 복식이란 속옷과 겉옷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며, Christian Dior이 “파운데이션(foundation)이 없는 패션은 있을 수 없다”¹⁾고 했듯이, 속옷의 기능 중 인체를 교정하고 변형하는 것은 이상미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속옷이란, 과거에는 겉옷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의복 전반²⁾을 가리켰으나,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다양한 사고가 나타나고, 성적(性的)인 정채, 현대의 기술, 패션 스타일의 빠른 계승, 대중 매체의 발달 등으로 겉옷과 속옷의 경계가 무너져³⁾ 단순히 겉옷 안에 입혀지는 의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의 형태를 띠면서 겉옷으로 입혀지는 의복까지도 속옷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란제리는 프릴이 달리고 자수가 놓인 레이스 캐미솔에서부터 스포츠 브래지어까지 혹은 겉옷으로서 속옷까지 포함한다.⁴⁾

이러한 속옷에 관한 국외 연구로 Riley는 인간은 당대의 유행 복식을 물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들 인체를 재구성해왔으며, 인체 구성의 변화는 복식의 재단, 코르세트리와 같은 고안물, 이상적으로 가정된 자세를 통해 성취되어 왔음을 지적하여 속옷의 역할을 강조하였다.⁵⁾ Thesander는 시대에 따른 이상적인 여성 인체와 이를 형성한 요소를 속옷과 겉옷을 함께 고찰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속옷의 겉옷화 현상(변소영, 2000; 최원, 1995)과 속옷의 변천사적 연구(오경숙, 1985; 이순자, 2000; 이순홍, 2000; 이인자, 1986), 속옷 광고의 의미 연구(김미영, 2000) 등이 있다.

속옷이 복식의 이상미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많은 연구

는 겉옷에 치중되어 왔으며, 속옷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적 변천이나 종류의 나열에 그쳐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20세기 후반에는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모호해져 점차적으로 속옷에 관한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미에 따른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을 제시하여 속옷에 관한 근본적인 이론의 초석을 다지고 업계와 학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20세기 후기를 십년 단위별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 등을 살펴보고,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이상적인 인체미와 겉옷의 양식과 속옷의 구성요소(형태, 색상, 소재, 패턴 등) 및 기법 등을 중심으로 속옷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 자료, 사진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속옷의 구성요소와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범위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른 이상미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과거 패션 주기가 재현되어 나타난 20세기 후기를 살펴볼 것이며, 속옷의 분류 방법들 중 Koichi Tsukamoto의 분류⁶⁾방법 중 인체 형태를 재구성하여 교정(reform)하는 코르세트리(corsetry)⁷⁾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상미(Ideal of Beauty)

이상미는 일정한 시기에 그 사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일치이며,⁸⁾ 지배적인 미적 가치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인체 이미지를 시각화한 것으로, 여성들은 이 인체 이미지와 시대정신에 적합한 새로운 스타일(복식)과 이상적인 인체 형태를 형성하여 왔다.⁹⁾ 즉, 이상미는 그 시대의 이

상적인 문화(미적가치), 이상적인 인체미, 이상적인 복식미가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 인체에 대한 이상미와 복식에 대한 이상미가 개발되었으며, 이 이상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며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본 장에서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역할과 이에 따른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이상적인 인체미와 이상적인 겉옷의 양식을 서양 복식사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1. 1960년대

1960년대는 경제적인 붐이 지속되었으며, 독특한 청년 문화를 성립하였다. 젊은이들은 의복, 액세서리, 섹슈얼리티 등 모든 것이 전세대와 달랐으며, 두 세대간의 차이는 이전보다 더 컸고,¹⁰⁾ 패션은 과거보다 광범위의 젊은이들에 의해서 영패션의 시대를 열었다. 또한,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은 '불평과 항의'의 시기로, 각종 시민권 운동과 여권 운동 등에 의한 캠페인이 일어났고, 무엇이 좋은가에 관해 새롭게 다양한 이상(ideal)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상적인 인체미는 다음과 같다. Twiggy나 Jean Shrimpton과 같은 모델에 의해 조장된 인체는 극도로 마르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모순과 반항의 혼합이었다. 좁은 몸통, 짧은 머리의 창백한 얼굴, 각진 어깨, 작은 가슴과 긴 다리, 큰 눈, 무기력하고 정신나간 듯한 소녀같은 모습이 이상적이었다.¹¹⁾ 즉, 여성스러운 곡선이 없는 미성숙한 어른의 인체를 완벽한 이상적인 인체로 정의하였으며, 이 모습은 극도로 마른 인체로 변해가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다.

미니멀리즘, 팝아트, 옵아트 등의 예술 양식하의 대표적인 복식형태는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어깨를 강조하지 않은 다양한 허리선의 짧고 직선적인 스타일로[그림 1-1], 이전보다 자주 바지를 착용하였다. 따라서, 복식사상 처음으로 엉덩이¹²⁾와 밑위¹³⁾가 성적인 관심이 되었다.

2. 1970년대

1970년대 초의 반전(反戰)운동, 통화팽창, 실업



<그림 1-1>
1960년대
「20세기패션」

<그림 1-2> 브라, 거들, 팬티,
「Beneath it all」, p.117.

<그림 1-3> "No bra" bra
「Rudi Gemreigh」, p.99.

증가와 1973년의 중동전쟁은 물가급등과 세계무역을 쇠퇴하게 하여, 사람들은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하였다. 피트니스, 여권 신장 운동, 히피 운동, 펑크 운동 등은 인체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였고, 진정함(authenticity)은 이 시대의 키워드였다. 즉,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의식주의 간소화, 전원 의상,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인기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상적인 인체미는 실물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natural figure)으로, 자신감에 차고 활동적이며 자신 스스로를 조절하는 여성이었다. 1960년대 이후 매우 마른 인체가 지속되었지만, 1960년대가 어린아이 같은 반면 1970년대는 긴 나무 토막 같았다.¹⁴⁾ 또한, 패셔너블한 여성들은 긴 다리와 가늘고 긴 팔, 작은 가슴과 힙, 가는 허리와 갈비뼈 등으로 어떤 연령으로도 보여질 수 있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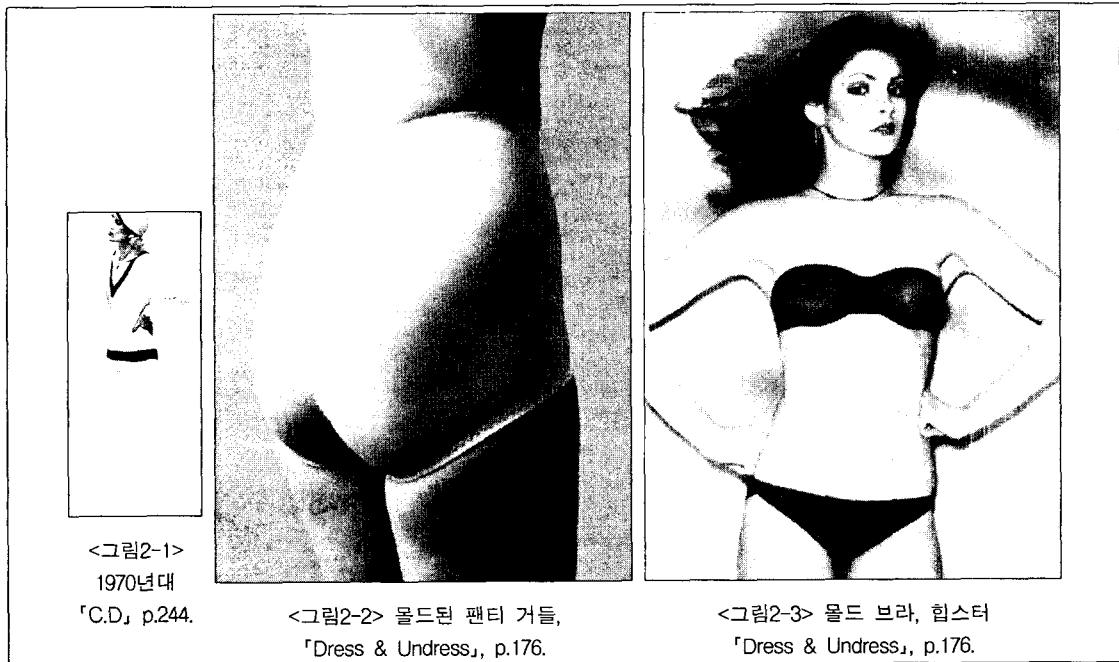
복식은 내추럴 룩(Natural look)이 유행하였고, 기본적인 일상복은 진, 스웨터, 가벼운 소재의 셔츠와 블라우스로 구성되었으며, 부드러운 이지 케어의 저지 니트류는 편안함을 강조하며 모든 품목에 이용되

었다. 직선적인 재단, 헐렁하게 맞는 드레스, 벨트 달린 셔츠 드레스 등은 인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심지어 안감이 없는 비구조적이며 캐주얼한 복식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그림 2-1].

3. 1980년대

1980년대는 고도의 과학 수준을 이루었으나 이에 반(反)한 회의와 반성으로 반(反)산업주의적 특성도 띄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류를 이루었고, 서구사회의 이분법이 해체되어 패션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의 예찬(the cult of success)"으로, 여성들에게 직장에서 성공은 인생의 목표였다. 1970년대의 "진실함"은 1980년대의 "성취감"으로 바뀌었고, 여성들의 힘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여성 파워 시대를 형성하였다. 바디 빌딩, 인체 만들기, 에어로빅에 대한 강박관념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거와는 달리, 인체의 형을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곡선은 외부의 힘(예; 패드 덴 브래지어, 웨이스트 신처, 거들)으로부터가 아니라,



엄격한 운동, 비싼 개인 훈련사, 유행하는 다이어트와 같이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상적인 인체미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더 이상 여성적인 곡선을 감출 필요가 없었으며, 이러한 곡선은 에로틱하기보다는 생동감과 건강미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큰 키, 근육질, 더 넓어진 어깨, 큰 가슴, 허리선 강조, 작고 올라간 힙, 긴 다리로 바디 컨셔스가 구체화되었다.

복식형태는 성공에 대한 예찬으로 등장한 넓고 패드 댄 어깨의 길고 폭 넓은 자켓, 블라우스, 짧은 직선의 스커트인 '파워 수트(power suit)'와(그림 3-1) 피트니스 열광으로 등장한 인체를 강조하는 폼 피팅 스타일(Form fitting style)이었다.

기 이후, 여성들은 다시 아우워 글래스 실루엣의 코르세트리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한세기 전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교육과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이다. 즉, 과거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던 형태는 재생하였으나 이를 이용하는 의미와 태도는 여성 압박이 아닌 여성 파워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상적인 인체미는 다음과 같다. 슬림한 인체는 되돌아왔지만, 가슴이 높고 큰 여성이 이상적이었다. 즉, 가슴사이의 골이 깊게 패인 큰 가슴골(cleavage)의 시기이며,¹⁷⁾ 새로운 자신감에 찬 여성들은 여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큰 가슴의 곡선적이고 여성적인 형태를 표현



<그림3-1>
1980년대
「F.I.」, p.210.

<그림3-2> 브라, 와스피, 가터,
스타킹, 「Lingerie」, p.91.

<그림3-3> 스포츠 브라, 팬티
「The Feminine Ideal」, p.208.

4. 1990년대

1980년대의 과도한 물질주의는 새로운 현실주의와 생태학적인 관심의 증가로 가라앉기 시작했으며,¹⁶⁾ 글로벌리즘과 다원주의가 주를 이루었다.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한 세

하였고, 에로틱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었다. 특히, 1994년 윈더 브라로 인해 섹시하고 인공적으로 강화된 여성의 형이 요구되었으며 허리는 다시 새로운 성감대가 되었다.¹⁸⁾ 즉, 날씬한 몸통, 큰 가슴(골)과 가는 허리, 편평한 복부, 올라간 힙, 긴 다리가 이상적이었다.

복식 형태는 란제리 룩과 스포츠 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우워 클래스 실루엣인 란제리 룩이 더 지배적이었다[그림 4-1]. 즉, 에로티시즘을 강조하며 란제리 룩과 인체와 의복과의 경계가 모호한 시드루 룩, 페티쉬 룩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룩은 80년대에는 실질적인 스포츠 웨어를 일상복처럼 입고 다닌 반면, 90년대는 일반 캐주얼 웨어에 스포티브한 디자인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착용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코르세트리의 유행이 감소하였다.

유연한 파운데이션¹⁹⁾의 유행은 Du Pont사(社)에 의해 소개된 혁신적인 스판덱스(Spandex)²⁰⁾ 때문에 더욱 가능해졌으며, 속옷의 구성과 형태를 변화시켰다. 이 라이크라 섬유유의 반짝이는 효과는 그 당시 유행했던 우주시대 스타일에도 이상적이었으며, 이전까지 제한 받던 레이스도 신축성이 커져



III.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

1. 1960년대

전 시기까지의 코르세트리는 신축성이 크지 않은 소재로 여전히 인체를 구속하며 조각하였지만, 이 시기는 '조각적인 변형'을 그치고 부드러운 소재의 개발로 인체에 밀착되었다. 속옷은 부피감이 적어지고,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졌다. 겉옷 아래 브래지어와 타이츠만 입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갔고,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더 이상 젊지 않아도

그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트리코트 타입(tricot types)의 라이크라는 신축성있는 소재와 비신축성 소재를 코디네이트시킬 뿐 아니라, 단조로운 색상과 프린트 된 것의 코디네이트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비비드 색상인 겉옷과도 코디네이션을 이루기 시작하여 파운데이션 웨어에서 기존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화려한 색상들이 점차 일반화 되어 갔다.

1) 코르셋(거들)

1960년대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들은 단순하고 기능적인 속옷을 원하였고, 라이크라의 개발로 뼈

대, 솔기없이 가벼우며 인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코르셋과 코슬릿²¹⁾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신소재의 개발과 기술, 그리고 구성방법은 거들이 부드러운 표면을 갖도록 하였고, 제 2의 피부로서 눈에 안보이게 밀착되었으며 인체를 부드럽게 감쌌다.²²⁾

거들의 형태는 주로 바지 형태인 팬티 스타일로, 길이가 짧고 인체를 둥글게 감싸주었으며 복부를 편평하게 해주었고 서스펜더²³⁾는 탈부착 가능했다. 1965년에서 70년 사이에 팬티 거들은 코르셋을 대신했고, 타이츠는 서스펜더와 스타킹을 대신하였으며, 1960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비비드 색상이었다.²⁴⁾

즉, 바지 착용이 많아짐에 따라 팬티 거들, 팬티 코슬릿과 탈 부착할 수 있는 서스펜더[그림 1-2, 中]가 파운데이션의 최고 유행스타일이 되어갔다. 팬티 거들의 종류로서, 브리프(brief)보다는 길고 일반 거들보다 짧은 “팬티(panties)”는 미니스커트로 인해 생긴 짧은 형태의 거들로 서스펜더를 탈부착 할 수 있었다[그림 1-2, 左].²⁵⁾(그림 1-2)의 오른쪽 모델이 입고 있는 프렌치 팬티 역시 니커가 미니 스커트에 맞게 작아진 형태이다. 또한, 엉덩이와 밑위 부분에 관심이 주어짐에 따라 힙을 받쳐주고 복부를 편평하게 해주는 기능은 거들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거들은 복부를 편평하게 해주기 위해 X자형(criss cross)의 이너 밴드로 대어 이중으로 복부를 눌러주는 것이 유행하였다[그림 1-2, 中].

이 시기의 거들 장식은 1950년대처럼 레이스류가 아니고 꽃무늬가 자수되거나 금실, 모조 다이아나 금속으로 장식되어졌다. 소재는 라이크라가 주를 이루었고 울, 나일론, 면, 울론, 발론 등이 혼방되었으며,²⁶⁾색상은 화려한 비비드 색상이 사용되었다.

한편, 코슬릿에서 중요한 발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후에 피트니스 열풍에서 나타날 이너 아우터웨어(inner outerwear)의 선구자가 되었다. 즉, 1961년 Warners사(社)는 라이크라로 뼈대, 솔기없이 매우 부드럽게 밀착시킨, 코슬릿이라기 보다는 원피스 수영복에 가까운 팬티 코슬릿인 ‘Birthday

Suit’ 파운데이션 웨어를 소개하였다. 그것은 몇 년 후 헤드라인을 이룰 ‘누드 룩(Nude look)’과 바디 스타킹 같은 유사한 의복의 전신이었다[그림 5 유사].²⁷⁾

그동안 착용되어온 스커트 스타일의 거들이나(그림 1-2, 中) 코슬릿도 여전히 착용되었으며, 가벼운 무게로 인체를 조절하였다. 또한, 1969년에는 팬티 거들과 합쳐진 새로운 팬티 스타킹이 소개되어 실용성을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슬립과 합쳐진 거들도 나왔다.

2) 브래지어

브래지어는 페미니스트들이 브래지어 착용을 멈추었을 때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브래지어를 계속 착용하였다.

전 시대까지 브래지어의 특징은 원추형의 모양지어진 컵, 신축성 없는 어깨끈과 조절장치, 형태가 잡힌 옆판, 뒷판의 혹여میم이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50년대의 원추형의 컵은 잔존하였으나, 이 시기의 브래지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둥글게 모양지어진 컵, 자연스러운 가슴을 보여주는 브래지어, 신축성 있는 어깨끈과 조절 장치의 개발, 라이크라 소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라이크라의 두드러진 특성이 신축성 있는 부분에 널리 사용되어 현대 브래지어의 강도와 가벼움에 이상적임을 증명하였다. 컵 안에는 파이버 필(fiberfil)이라 불리는 부드러운 폴리에스테르 솜이 딱딱한 컵과 고무 안감을 대신하였다. 이것은 폼고무의 반복되는 세탁에서 오는 마르고, 딱딱해지고, 가루가 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였다.²⁸⁾²⁹⁾

여성해방운동과 히피운동은 인체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였고, 인체를 구속하는 브래지어가 주요 타겟이 되었다. 어떤 여성들은 브래지어를 버렸고, 어떤 여성들은 브래지어를 때때로 착용하지 않거나 어떤 여성들은 유두를 숨기지 않고 인체를 감싸는 부드러운 신축성 소재의 ‘노브라(no-bra)’ 룩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주로 나이 들고 억압받았던 구세대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의 승인을 얻기 위해 패드가 대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진 브래지어를 착용하였다. 어쨌든 브래지어는 이 시기 말에 훨씬

더 편안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브래지어는 두 종류로 유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얇게 패드 대어진 컵 브래지어가 유행한 반면, 1960년대 중반 이후는 “반 나체주의”, “나체주의”, “맨가슴(bare breast)”의 경향으로 “누드 브라(nude bra)”가 나타났다.

먼저, “컵이 있는 브래지어”의 경우, 대개 만들어진 컵을 대거나[그림 1-2左], 언더와이어가 없이 스트레치 소재만으로도 가슴을 받쳐주거나[그림 1-2中], 가슴을 위로 밀어 올려주는 푸쉬 업(push up) 브라가 여전히 착용되었지만[그림 1-2右], 세 여성 모두 50년대의 풍만한 가슴에 비해 가슴 크기가 작아졌음을 볼 수 있다.

다음, “누드 브라”의 경향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Rudi Gernreich에 의해 발명된 “노브라(No bra)” 브라이다. “노브라” 브라의 소재는 정교하고 비치는 신축성 있는 그물 혹은 나일론 트리코트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였다. 그것은 패딩이나 모양을 만들지 않고 편안하게 가슴을 덮었으며,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들에게 매우 어필하였다. 또한 부드럽게 인체 윤곽을 따라 흘렀으며, 조절 가능한 어깨끈의 도입과 함께 완벽하였고 시드루 패션과 함께 인기를 얻었다[그림 1-3]. “노브라” 브라의 더 발전된 모델은 신축성있는 열가소성 소재로 모든 다트를 없앴으며,³⁰⁾ 색상은 흰색, 검정색, 그리고 “누드”톤이 가장 인기있었다.³¹⁾

2. 1970년대

“내추럴 룩(Natural look)”의 자연스러운 이상미에 맞추어 속옷 또한 인체에 자연스럽게 몰드된 것이 유행하였다. 몰딩(moulding)³²⁾기술의 발달로 솔기, 여밈, 시접이 없는 브래지어와 거들이 소개되어, 의복 아래에 착용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소재나 색상도 가볍고 투명한 느낌을 주는 “나체주의”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몰딩의 자연스러운 형과 가벼운 느낌은 이 시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였다. 속옷은 인체를 과장하고 조이기보다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드러내주고 자유와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다.

소재를 살펴보면, 1971년 새틴 스티치의 새로운 타입의 스판덱스가 소개되었다. 이것은 부드럽고 견고한 재질로 인체를 부드럽게 형태를 만들면서 강하게 조절해 주었고 신축성에 의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판덱스 혼방은 부드러운 끝마무리의 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브래지어와 거들, 이너 아우터 웨어(레오타드, 타이츠, 바디 스타킹) 등을 만드는데 이상적이었으며, 겉옷 밖으로 솔기나 부피감을 드러내지 않았다.³³⁾

1) 코르셋(거들)

1960년대 후반의 여권 신장 운동과 히피 운동과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복식의 변화와 인체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은 거들의 쇠퇴를 유도했다. 예를 들어, 미니스커트로 인한 타이츠의 유행은 스타킹을 잡아주는 거들의 한 기능을 제거하여 캐주얼 웨어나 타이츠를 선택하게 하였고, 거들은 주로 남성의 극단적 우월주의의 상징으로서 나이든 세대나 근육이 약화된 여성들이 사용하였다.³⁴⁾ 이러한 거들의 쇠퇴에 대한 미국의 한 연구는 “여성들이 거들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거들의 착용은 거의 법적인 요구였으나 이제 여성들은 운동, 다이어트 혹은 자연스러운 인체 그대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거들은 바지가 표준화됨에 따라 팬티 스타일의 파운데이션이 주도하였으며, 길이는 길고 짧은 스타일이 공존하였다. 즉, 다리 길이가 긴 팬티 거들은 70년대에 재구성되어 더 부가적인 지지를 해주었으며, 60년대의 팬티보다 길이가 더 짧아진 거들은 과거에 인기있었던 긴 거들대신 유행하였다[그림 2-2].

과거의 “구조적”과 “혈렁하게 맞는”의 논쟁은 신축성 있는 라이크라의 “스킨 타이트(skin-tight)”와 “타이트하게 맞지 않는(unfitted)”의 논쟁으로 대체되어갔다. 70년대 중반에 시작된 몰드된 거들(그림2-2)은 뼈대, 여밈, 솔기선 없이 한 장의 패턴만으로 자연스러운 엉덩이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새틴스티치로 인해 착용한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Sloggy사(社)는 의복 겉으로 “보이는 팬티 선”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팬티 코슬릿은 열고정되어 브래지어 컵의 솔기, 뼈대, 여밈이 없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인체의 형을 만들어 내었다. 에어로빅과 피트니스 열풍이 더해감에 따라, 70년대 말 새로운 신축성 있는 엘라스테인 트리코트 레오타드가 선보였다. 이것은 스포츠 웨어지만 이너 아우터 웨어와 속옷에 모두 착용되었고 세컨드 스킨 의복 안에서 부드러운 실루엣을 창조해내기 위한 필수품이었다[그림 5].



<그림 5> 바디 수트
『Unmentionables』, p.96.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혹은 나일론과 라이크라 혼방과 같이 인체에 잘 맞고 가벼운 소재가 이용되었으며, 색상은 흰색, 레몬색, 핑크색, 푸른색 같은 파스텔톤과 브라운톤이 주로 쓰였다.

2) 브래지어

1960년대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것이 유행되면서 많은 란제리 제조업자들이 파산하였다. 그러나, 여성 압박의 상징인 브래지어는 여권주의 운동에 의해 경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Gossard사(社)와 같은 제조업체들은 코르셋 제조를 포기하고 새롭고 매력적인 브래지어를 개발하는데 집중하였고, 1972년 ‘보이지 않는 브라(invisible bra)’는 브래지어 판매를 가속화 시켰다.³⁵⁾ 또한, 1960년대 후반의 경구(oral) 피임약은 여성들의 가슴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큰 가슴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브래지어

를 입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제조업자들에게 성혁명이 재정적인 피해를 주었지만, 결국 그것은 오래 남아있거나 마켓에 늦게 뛰어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⁶⁾

이 시기는 ‘내츄럴 룩’이 유행하여 곡선과 부드러움이 돌아왔으며, 자연스럽게 보이는 몰드 브라가 유행하였다. 브래지어는 내츄럴 룩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컵 안감과 패드, 와이어를 생략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³⁷⁾ 특히, 여성들이 적시 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되었으며, 컵의 가장자리는 엘라스틱과 함께 몰드되었다.

Warner사(社)는 맨가슴의 느낌을 주는 “Special Pull”이라 불리는 솔기없는 몰드된 컵의 브래지어를 소개하였고, 프랑스의 Huit사(社)는 ‘내츄럴 룩’을 선택한 틴에이저와 여성들을 목표로 공기만큼 가볍고 유연한 브래지어를 제공하였다. 몰드 브라는 용접되었고 초음파에 의해 꿰매어져 솔기, 시접, 여밈이 없이 인체에 유연하게 밀착되었다[그림 2-3]. 이러한 스타일은 1960년대 Gemreich의 노브라 브라에서 시작되어 이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사진의 모델은 70년대의 특징인 힙에 걸치는 힙스터 비키니(hipster bikini)를 함께 착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키니는 1960년대 브리프 크기의 반 정도로 작아졌다.³⁸⁾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혹은 나일론과 라이크라 혼방과 같이 인체에 잘 맞고 가벼운 소재가 이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인기있었던 나일론 넷트 언더웨어는 타이트하게 맞는 의복아래서 자연스럽게 티 안나게 보이기 위해 디자인되어 여성들이 선호하였다. 색상은 전 시대의 이국적이고 선명함을 벗어나 파스텔톤, 베이지톤, 브라운톤을 다뤘으며, 다양한 고객들의 피부톤에 반응하여 나타났다.³⁹⁾

3. 1980년대

1980년대의 수퍼 우먼은 전문적인 직업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인 트레이닝과 바디 빌딩으로 만들어진 건강미를 중요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파워 수트의 정장 안에는 성(gender)의 혼돈을 구체화하면서 매니쉬함을 보완하기 위해 색

시한 속옷을 입었다.⁴⁰⁾ 이 화려한 속옷은 1970년대 중반 가학 피학적인 변태 성욕과 포르노그래피의 장소로 시작한 핑크 스트리트 패션의 “Sex shop”의 영향과⁴¹⁾ 직업적인 성공으로 여성적인 외모를 경시할 필요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섹시하고 매력적인 속옷은 남녀동등과 에로티시즘, 관능적인 면의 접근을 드러냈으며, 핑크 패션의 영향으로 속옷의 걸옷화가 가시화되었다.

화려한 레이스 캐미솔, 자수된 브래지어와 팬티 세트, 실크 테디(슈미즈와 팬티로 뒀)와 탭 팬츠, 망사스타킹, G-스트링(음부만 가리는 천 조각)이나 탕가(tangas: thongs, 끈 모양의 비키니), 서스펜더 등이 그 예이며, 주로 레이스 달린 실크와 새틴 등의 화려한 소재로 만들어졌다. 프릴과 플리츠 장식이 사용되거나, 호린 복숭아 색, 라이락색, 장미색, 황갈색과 흰색이 주를 이루었다.

위와 같이 화려하고 섹시한 관제리가 유행한 반면, 피트니스의 열광으로 인해 이너 아우터웨어인 브래지어 탑, 바디 슈트, 레오타드 등이 유행하거나 스포츠 브라와 같은 속옷이 유행하였고 디자이너들은 공식적인 이너 아우터웨어 유행에 맞추어 자체 브랜드의 관제리를 제조하였다. 라이크라와 광택나는 신축성 있는 소재가 인기를 얻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직물로 디자인되어 색상, 무늬, 직물은 무한한 조합이 가능했다.

1) 코르셋(거들)

1980년대는 코르셋이 과거와는 다른 반전된 복합적인 의미로 착용되었다. 이 코르셋들은 70년대 후반 핑크족들에 의해 걸옷으로도 가시화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속박과 페티시즘을 연상시키는 비일상적인 소재(가죽, 고무, PVC등)로 만들어졌고, 클럽 문화에서 현대 복식 착용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관제리 패션의 새로운 유행을 정착시킨 Manonna는 섹슈얼리티의 파워를 선언하며 이너아우터 웨어를 입고 공연하였는데, 그 의복은 포스트 모던의 아이러니한 감각을 위한 키치적 취향의 추가로 연약함보다는 강함을 연상시켰다.

속옷으로서 코르셋은 브래지어, 가터달린 허리 부분 코르셋인 와스피, 팬티, 스타킹 등의 패키지

가 세트를 이루는 것이 유행하였다[그림 3-2]. 이와 같은 와스피나 바스크들은 과거의 디자인이 돌아왔지만 소재는 라이크라, 나일론이 혼방되어 인체에 자유를 주면서 조절해 주었다. 디자인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리부분에서 높게 재단된 팬티가 나타난 점이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 수영복에서 시작되었으며, 재단된 선이 힙 뼈 위쪽까지 올라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좁은 힙·넓은 어깨로 고전적인 남성의 이상적인 역삼각형 형태의 인체를 강조하였고, 음부를 덮고 있는 좁고 길어진 부분은 남성의 성기와 비슷해지기 시작하였다[그림 3-2, 3].⁴²⁾ 또한, 섹시함을 강조하며 스타킹을 고정시키는 가터의 판매율은 이 시기 초반에 150%나 올랐으며, 1986년 이후는 가터없이도 스타킹이 고정되는 스테이 업(stay up) 스타킹이 나와 가터는 거의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인체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인체를 드러내는 의복으로 나타나 속옷이 더욱 타이트해졌으며 걸옷, 속옷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몸매를 드러내었다. 라이크라라는 이러한 타이트한 의복에서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거들은 의복 아래서 매끄러운 인체를 나타내도록 디자인되었다. 거들은 주로 팬티 거들이 사용되었으며, 유용성에 대한 요구로 거들과 타이츠가 하나로 된 콘트롤 타이츠(control tights)는 좁은 힙과 복부를 편평하게 해주는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그림 4-2유사].

또한 복부의 지방 흡입술, 운동, 다이어트 등으로 가는 허리와 좁은 힙을 만드는 역할은 속옷의 역할보다 더 컸다.

2) 브래지어

브래지어도 코르셋과 마찬가지로 속옷의 형태인 대담한 걸옷으로 나타났다. 걸옷 브래지어의 시대는 1982년 Westwood의 Buffalo Girl Collection A/W에서 큰 핑크색의 브래지어가 걸옷으로서 입혀지는 것으로 출발하여, 마돈나와 유리스믹스의 싱어 Anni Lenox(가죽바지와 빨간 레이스 브래지어)에 의해 인기를 얻었다. 이와 같이 섹시한 스타일의 브래지어가 걸옷으로 입혀지는 반면, 이 시기에 유행한 피트니스 열광은 타이트한 티셔츠 브라

지어와 같이 스포티한 형태로 나타났다.

속옷으로서의 브래지어도 위의 두 경향이 있었다.

첫째, 섹시한 스타일의 브래지어이다. 1980년대는 풍만한 가슴이 아름다움의 표준이 됨에 따라, 우유빛 톤의 크고 둥근 가슴으로 회귀했다.⁴³⁾ 프릴 장식과 주로 반 컵(half cup) 형태로 가슴의 골을 드러내어 섹시함을 강조했으며, 패드가 넣어지고 와이어로 풍만한 가슴을 받쳐주는 브래지어가 인기있었다[그림 3-2].

와이어 브라는 다시 판매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푸쉬 업(push up)브라는 199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브래지어 컵 윗단은 주로 수평적으로 나타나 상체가 더욱 넓어 보이게 하였으며 브래지어는 과거의 브래지어와 달리 정련되고 편안하였다.

둘째, 스포츠 브라를 살펴보면, 1980년대와 90년대의 에어로빅에 대한 열망은 스포츠 브라 시장을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다.⁴⁴⁾ 피트니스 열광이 지속됨에 따라, 헬스클럽에서 입히던 스포츠 브라가 발전되었다. 스포츠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스러운 “주름장식의 룩(flouncy look)”을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속옷에도 나타나 단순하고 매끄러운 선으로 디자인되었다[그림 3-3].⁴⁵⁾

소재는 스포티브한 스타일에서는 주로 면과 스판덱스가 혼방되었으며, 섹시한 스타일에서는 주로 나일론, 폴리에스테르와 스판덱스가 혼방되었다.

이 외에도, 크고 풍만한 가슴을 만들기 위해 실리콘 주입이나 다이어트, 운동 등으로 가슴은 인공적으로 조각되고 구성되어졌는데, 이러한 역할이 속옷의 역할보다 더 컸다.

4. 1990년대

1980년대 후반 이후 코르세트리는 복귀하였고, 새로운 소재와 기술에 의해 개선되었다. 과거의 코르세트리는 주로 허리를 압축하여 아우워 글래스 실루엣으로 만들어 가슴과 힙으로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되었다. 즉,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없을 때 사회적 지위(남편)를 얻기 위하여, 겉옷 안에서 여성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여 성적 매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세계의 앞서

가는 오프 쿠티르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인식을 뒤집고 코르세트리를 패셔너블한 겉옷으로 창조하였으며,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들 역시 여성성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으로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며 코르세트리를 겉옷화하였다. 즉, 속옷의 겉옷화가 일상적이 되었으며, 가학 피학성 변태성욕(sadomasochism)과 네오 핑크를 참고로 하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여성성을 지닌 채 받아들여져⁴⁶⁾ 여성을 압박한다기 보다는 여성 파워를 상징하였다.

속옷의 특징은 1980년대의 스포티한 속옷이 더욱 발전되었으며, 섹시와 스포티가 이어지다가 1990년대 후반에 두 현상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소재를 살펴보면, 인체를 조각하며 “제 2의 피부”라 일컫는 극단적으로 가는 소재인 마이크로 파이버(microfiber)는 UV차단, 체온 조절, 땀으로 인한 향균성의 향기나는 캡슐 등을 제공하였으며, 촉감, 신축성, 부드러움은 란제리의 밀레니엄을 마감하는 추구였다. 마이크로 파이버는 대개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졌지만 나일론, 아크릴, 레이온으로도 가능하였고, 다른 가벼운 직물에 비하여 더 조밀하게 제직을 할 수 있으며, 구김이 가지 않고 형태 안정성이 좋았다.⁴⁷⁾

1) 코르셋(거들)

겉옷으로서 코르셋은 Westwood, Lagerfeld, Gaultier, Mugler, Alaïa 등의 오프 쿠티르 디자이너들에 의해 코르셋 디자인이나 구성 테크닉을 이용하여 신소재로 만들어졌다. 이 의복들은 또한 이너 아우터 웨어로도 착용될 수 있으며, 과거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로 여성 인체와 여성 파워를 과시하였다.

속옷으로서 코르셋(거들)은, 원래의 목적(허리 축소)인 과거로 되돌아갔고 인체를 다듬는 바디 웨이퍼는 모든 형태를 제시했다. 아이러니하게 코르셋은 종종 패션과 페티시즘의 이중 역할로 결합되었으나, 과거같이 타이트하게 인체를 졸라 매는 코르셋이 아닌 더 발전된 소재로 더 많은 지지와 편안함을 제공하였다.⁴⁸⁾ 여성들은 그들의 인체를 새로운 형으로 조절하고 타이트하게 고정시켰으며,

이것은 인체를 조각하는 섬유 마이크로 파이버 라이크라에 의해 가능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나 지방 흡입술 없이 운동 관례를 바꾸지 않고 코르셋(거들)만으로 4“-5”나 감소했다고 저술했다.

1950년대까지의 거들과 달리, 1990년대의 라이크라 스판덱스 바디 웨이퍼는 가볍고 편안하게 인체를 조절하였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착용자의 욕구에 맞게 만들어졌다.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 부분적인 패널을 대거나 전체적으로 날씬한 효과를 주기 위해 전체 패널을 첨가하여 만들어졌다. 브리프, 팬티, 타이츠, 그리고 수영복 등은 그 선두를 달렸고, 여성들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보장하였다. 또한 푸쉬 업, 가벼운 콘트롤과 복부를 편평하게 하는 기능으로 힙과 엉덩이의 선을 개조하는데 도전하였다.⁴⁹⁾ 즉, 힙 아래에 안감을 대어 엉덩이를 받쳐줄 수 있게 하였으며, 가장자리 레이스 처리는 팬티 거들의 경계선을 완화시켜 의복 겉으로 그 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속옷의 일부는 UV 차단, 마사지 치료, 피하 지방 제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졌다.⁵⁰⁾

콘트롤 타이츠는 소재가 발전됨에 따라 그 지지하는 기능이 더욱 확실해졌고, 실용적인 이유로 거들보다 더 많이 착용되었다. Pretty Polly사(社)의 Secret Slimmer와 같은 현대의 타이츠는 거들같은 패널을 복부에 댄 타이트한 팬티와 합쳐져 완벽한 실루엣으로 재구성되어 올라간 힙, 날씬한 힙, 허벅지, 다리를 만들어냈다(1996)[그림 4-2]. 이것은 이 시기의 거들로서 가장 인기있었고 편안함과 실용성을 겸비하였다.

팬티스타킹, 레오타드, 그리고 팬티의 다리 재단선은 G-스트링이나 끈 팬티(thong)와 같이 힙이 드러난 디자인이 인기 있었으며 인체에 거의 안 보이게 밀착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섹시한 디자인이 결합되었으며, 파이프 트림의 가장자리 처리로 매끄러운 형을 만들어 내었다.

시대적으로 흐름을 보면, 20세기 후반 이후 하체가 주목받기 시작하여, 70년대에는 힙 선에 걸치는 힙스터가, 80년대에는 다리 위에서 높게 재단된 하이 컷 스타일이, 90년대에는 힙 위까지 드러내는 스타일이 인기를 얻었다.

2) 브래지어

1990년대 동안 란제리 세계의 관심은 가슴이었다. 란제리가 창조된 이래, 브래지어는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가 되어 무려 43조각까지 구성되어졌다.⁵¹⁾

이 시기에는 거의 대립적인 두 스타일이 지배하였다. 그것은 스포티한 스포츠 브라와 섹시한 푸쉬 업 브라이다. 1990년대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델들은 에너지틱과 에로틱으로 양분화되었고, Calvin Klein과 Gossard사(社)와 같은 란제리 제조업체들은 피부 톤인 “세컨드 스킨”의 새로운 세대에 반응하여 가슴을 위장함과 동시에 드러내는 디자인을 하였다. 페미니스트 운동 중에서 가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여성 패션에서 유두가 보이는 것에 대한 승인으로, 컵이 있는 브래지어에도 유두가 몰드되어 나타났다. 큰 가슴에 대한 강조는 50년대, 80년대에도 유행하였으나 90년대 브래지어는 특히 패딩으로 푸쉬 업되어 가슴 골이 보이도록 디자인되었다.

첫째, 스포츠 브라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에어로빅에 대한 열망은 스포츠 브라 시장을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고 1990년대에 더욱 발전하여 편안하고 제한하지 않는 스포츠 브라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패션이 덜 구조적인 형으로 변함에 따라, 브래지어도 매우 밀착된 부드러운 선을 따랐다[그림 3-3유사]. 색상은 주로 무채색이 사용되었으며, 부드러운 니트와 쿨 맥스(coolmax) 혹은 면과 라이크라로 만들어졌다.

둘째, 섹시한 푸쉬 업 브라는 속옷 시장에 영향이 컸다. 광고주들은 매력적인 미인의 회귀를 도왔으며, 슈퍼모델 Eva Herzigova, Adriana Sklenarikkovva, 그리고 육감적인 Anna Nicole Smith는 성공적인 란제리 캠페인을 자극했다.

푸쉬 업 브라 중 울트라 브라(Ultrabra bra), 윈더 브라(Wonderbra), 미라클 브라(Miracle bra)는 시장을 강타했다. 란제리에 대한 광고 캠페인은 브래지어 전쟁으로 표현되었다.

Gossard사(社)의 울트라 브라(1992)는 가슴골을 재창조하고 가슴을 들어올려 브래지어 컵 위로 부풀어 보이게 했다. Playtex사(社)의 윈더 브라

(1994)는 곡선미 있는 여성미의 회귀로 향하게 한 상당한 히트 상품이었다. 윈더 브라는 패드가 대어 지고 언더 와이어가 들어간 푸쉬 업과 업 리프트 브라이다. 이 패딩의 전조는 1790년대에 성적(性的) 매력을 더하기 위해 와딩(솜)을 넣어 만든 인공 가슴이며,⁵²⁾ 1990년대 윈더 브라의 푸쉬 업의 효과는 언더 와이어 컵과 제거 가능한 패드를 아래 컵에 대어 받쳐줌으로써,⁵³⁾ 유방 확대 이식 수술과 같은 극적인 가슴골을 형성해주었다[그림 4-3]. 1995년 미라클 브라가 착수되어 윈더 브라와 경쟁하였으며, 수년간 유행하였다. 이와 같은 푸쉬 업 브라는 주로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나일론과 스판덱스가 혼방되었고, 컵의 안감은 면섬유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푸쉬 업 브라와 스포츠 브라는 세기말에 그 선이 흐려져 혼합된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티는 섹시로 방향을 바꾸었다.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크고 풍만한 가슴이 이상적이지만, 80년대에는 둥글고 생동감이 넘치는 가슴이며, 90년대에는 가슴골이 더욱 강조된 섹시한 가슴이다. 브래지어 컵 윗단은 80년대는 수평적으로 상체가 넓어 보였으며, 90년대는 사선으로 몸통이 더 좁아 보이게 했다. 브래지어 컵은 80년대에는 약간의 푸쉬 업으로 가슴을 감싸는 형이었고, 90년대는 아래 컵에서 패딩으로 위로 밀어 올린 형태이다.

<표 1>에서는 위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 20세기 후기 이상미에 따른 속옷의 구성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사회문화적 배경	젊은이의 문화 형성, 사회적·정치적 저항운동	여권 운동, 히피운동→“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성공에 대한 예찬, 피트니스 열광	여성 파워로 인한 여성성 강조, 속옷의 걸옷화
이상미 / 걸옷	작은 가슴, 긴다리의 극도로 마르고 미성숙한 베이비 돌룩	성특성이 제거된 내추럴 룩	넓은 어깨, 큰 가슴, 가는 허리, 좁은 힙, 긴 다리의 파워풀한 비숍더 룩	깊은 가슴골, 가는 허리, 편평한 복부, 올라간 힙의 아우워 글래스룩
코르셋 (거들)	· 짧은 팬티 거들, 서스펜더 사라짐 · 라이크라→구성선(빠대, 솔기, 여덥)사라짐, 가벼움, 컨트롤	· 몰딩(열고정)→솔기, 시집, 안감없이 인체에 자연스럽게 몰딩	· 와스피, 거들 · 이너 아우터 웨어 (90년대도 지속)	· 콘트롤 타이즈(스타킹+거들)→복부패널강화, 날씬한 허리, 다리, 힙 구조
브래지어	· 얇게 패딩한 작고 둥근 컵 브라 · 패드대지 않은 컵없는 브라	· 솔기, 시집, 와이어, 안감없이 인체에 자연스럽게 몰딩	· 와이어, 패딩 · 이너 아우터 웨어(90년대도 지속) 바디빌딩, 지방흡입, 실리콘주입	· 푸쉬업 브라 →아래컵 패딩과 와이어로 가슴을 받쳐올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후기를 십년 단위별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고,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인체의 이상미, 걸옷의 이상미, 속옷의 구성요소(형태, 색상, 소재, 패턴 등) 및 기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를 하였고, 사진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속옷의 구성요소와 기법을 분석하였다.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이상적인 인체미를 선행 연구⁵⁴⁾와 합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세기 동안 날씬한 인체가 강조되었고, 미디어에 의해 이러한 이미지는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날씬하고 마른 인체는 가부장제와 가정의 관습적 굴레로부터 여성이 점차 해방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세기 중 1970년대는 여성 해방 운동과 히피 운동으로 성 특성이 제거되고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던 시기로 어느 특정부위가 강조되지 않았다.

어깨의 경우, 여성미가 강조되던 1930, 50년대에는 둥근 어깨가 강조되었으며, 전통적인 여성성을 거부하거나 남성적인 역할을 강조하던 1920, 40, 60, 80년대에는 주로 각이 지고 넓은 어깨를 강조하였다.

가슴의 경우, 1920, 60, 70년대의 작은 가슴에서 1930, 50, 80, 90년대의 큰 가슴으로 된 객관적인 요인은 스포츠의 증가, 향상된 영양, 적절한 건강 기술, 경구 피임약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은 여성성을 거부하던 시기와 여성성을 강조하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여성성을 강조하던 시기(30,50,80,90)에서도 30년대와 50년대는 수동적인 여성성이, 80년대와 90년대는 능동적인 여성성의 표현이 강조되었다.

허리는 여권 신장 운동이 좀 더 가시화된 1910년대부터 허리를 가늘게 졸라매던 것이 완화되기 시작하여 여성스러움이 덜 강조되던 1920, 40, 60년대에는 완만한 허리선을 보였으며, 수동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던 30, 50년대에는 가는 허리가 강조되었다. 가슴과 마찬가지로 80, 90년대에는 다시 가는 허리가 강조되었지만 이미 사회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으므로 여성스러운 곡선을 감출 필요가 없었으며 여성성을 자신있게 강조하였다.

hips은 20세기 동안 다산을 거부하는 의미를 지닌 좁은 hips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바지의 사용이 증가한 20세기 후반부터 올라간 hips, 엉덩이, 밑위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다산을 거부하는 움직임은 20세기 후반 편평한 복부에서도 나타난다. 다리는 움직임을 나타내며,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아져 기능적인 면이 추구되면서 20세기 동안 긴 다리가 이상미가 되었다.

여성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성스러움이 강조되던 1930, 50, 80, 90년대 중, 30년대와 50년대는 전통적인 수동적인 여성성으로, 80년대와 90년대는 능동적인 여성성으로 강조되었다. 능동적인 여성성은 사회적 지위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신감으로 여성의 곡선을 과시하고, 종속적인 여성성으로부터의 해방을 표현하며 나타났다. 즉, 80년대는 건강하고 근육질의 생동감 넘치는 인체로, 90년대는 섹시하고 인공적으로 강화된 인체로 나타났다.

여성스러움을 거부하거나 남성적인 역할이 요구되던 시기는 1920, 40, 60, 80년대이다. 1920년대는 전쟁 후 여성역할의 거부와 남녀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의 특징을 없앤 직선적인 인체로 나타났으며, 40년대는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넓은

어깨의 완만한 인체로 나타났다. 60년대는 전통적인 여성성의 거부와 자유를 추구하며 성숙한 인체가 되지 않은 듯한 미성숙한 인체로 나타났다. 80년대는 성공에 대한 예찬으로 넓은 어깨의 남성적인 파워 수트를 착용하였으며 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한 양성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으로 여성성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가슴, 허리, hips의 인체 곡선이 강조되었고 여성성을 거부하던 시기에는 여성스러운 곡선을 거부하고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다가 1970년대에 성특성이 제거된 후, 다시 여성 인체를 강조하는 아우워 클래스형으로 회귀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경제적 지위가 없을 때 사회적 지위(남편)를 얻기 위하여 여성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여 성적인 매력을 증가시켰으나, 20세기 후반 교육과 직업으로 능력을 인정 받은 여성들은 여성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여성 파워를 상징하며 여성 인체의 곡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이상미와 겉옷·속옷의 이상미의 비교·고찰과 소재 발달에 따른 속옷 구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는 2차 대전 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자라 젊은이의 문화를 형성하였고, 전 시대를 거부하며 자유를 추구하였다. 이상미는 작은 가슴, 긴 다리의 극도로 마른 미성숙한 모습으로, 미니스커트 룩이 유행하였다. 작은 가슴을 유지하기 위해 얇게 패딩20세기 이상미에 따른 속옷의 구성되거나 패드대지 않은 브라지어를 착용하였으며 바지 착용이 잦아짐에 따라 바지형의 짧은 팬티 거들이 유행하였다. 강한 신축성과 탄성을 지닌 라이크라 모든 여밈, 뼈대, 술기를 사라지게 하였고 더 가벼운 무게로 인체를 조절하며 자유를 주었다.

1970년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여성 해방 운동, 히피 운동 등으로 인체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성적 특성이 제거된 자연스러운 인체가 유행하였다. 따라서, 내츄럴 룩을 위해 심지나 안감이 없는 비구조적인 형태의 니트나 헐렁한 셔츠 드레스 등을 착용하였으며, 속옷도 열가소성 소재로 안감, 여밈, 술기선을 제거하여 인체에 자연스럽게

몰딩한 브라지어나 거들을 착용하였다.

1980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성공에 대한 예찬과 피트니스에 대해 열광이 일어나 파워 수트나 인체에 타이트하게 붙는 스타일로 여성 파워나 건강미를 강조하였고, 낫다. 이는 생동감과 건강함이 강조된 파워풀한 근육질의 여성이 등장하게 하였으며, 넓은 어깨, 풍만한 가슴, 강조된 허리선, 작고 올라간 힙, 긴 다리의 바디 콘서스가 구체화되었다. 이상미를 위해 패드 덴 브라로 가슴을 풍만하게 받쳐주었고 와스피로 허리를 가늘게 강조하였으며, 콘트롤 타이츠로 복부를 편평히 하고 힙을 받쳐주었다. 이 때는 겉옷의 실루엣을 지지한다기 보다는 겉옷과 조화하여 이상적인 체형을 향하였으며 핑크 운동을 시초로 코르세트리도 이너 아우터웨어화 하였다.

1990년대에는 다윈주의와 글로벌리즘이 주를 이루었으며, 여성들은 관능적이고 전문적인 새로운 자유를 즐기며 여성 파워를 주장하였다. 날씬하지만 큰 가슴이 이상미로, 겉옷은 아우워 클래스 실루엣의 여성 인체 곡선을 강조하였다. 속옷은 가슴 골을 강조하며 가슴을 위로 받쳐 주는 푸쉬 업 브라와 가는 허리, 편평한 복부, 올라간 힙, 날씬한 다리를 만드는 콘트롤 타이츠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여러 기능이 부여된 마이크로 파이버는 이러한 인체를 조각하는데 이상적이었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후기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속옷의 구성 요소 및 기법을 살펴보았다. 이상미를 이루기 위한 겉옷·속옷의 형태는 항상 방향을 같이 하였다. 겉옷·속옷의 색상은 20세기 후반부터 조화를 이루었으며, 소재는 새로 나온 신소재를 모두 이용하였으나,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신축성을 요구하는 코르세트리였으므로, 서로 관계가 있던 시기는 이너 아우터웨어화가 시작되어 겉옷에 신축성의 개념이 주어진 1970년대 후반부터였다. 전반적인 특징인 구성은 20세기 동안 이상미를 향하여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소재의 발달은 속옷의 패턴 수를 감소시키고 뼈대, 솔기, 여밈, 시접없이 인체에 밀착되어 인체를 조절하기에 이르렀다. 즉, 1960년대 라이크라를 이러한 모든 요소를 사라지게 하였고, 70년대는

열고정으로 인한 몰딩으로 한 장의 패턴만으로 모든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80년대는 여러 가지 가공으로, 90년대는 첨단으로 기능성을 제공하며, 이제는 시각보다는 촉각과 감성으로 향하고 있다.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코르세트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코르세트리는 과거에는 신축이 제대로 안되는 소재와 뼈대로 인체를 압박하여 이상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의복은 거부되었으며, 소재의 발달에 따라 뼈대가 사라지고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인체 움직임에 자유를 주면서 이상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속옷은 속옷 내에서 기능이 합쳐질 뿐 아니라 겉옷과도 기능이 합쳐져 이너 아우터웨어 하나로 이상미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과거 겉옷의 속에서 인체를 조각하던 역할이 20세기 후반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성의 상징으로 겉옷으로 표출되어 여성 파워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상미에 속옷은 겉옷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물자료가 아닌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미흡하리라 여기며, 전반적인 속옷이 아닌 이상미를 이룬 코르세트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속옷에 대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Elizabeth Ewing (1978). *Dress & Undress*, (London : B.T.Bastford), p.11.
- 2) 라사라교육개발원 (1991). 복식사전. 서울 : 도서출판 라사라. p. 219.
- 3) Karen W. Bressler & Newman, Karoline & Proctor, Gillian (1997). *Lingerie: A Century of Style*. New Jersey : Quarto Inc., p.11.
- 4) Catherine Bardey (2001). *Lingerie*. New York : Black Dog & Leventhal Publishers, Inc., pp. 21-23.
- 5) Donna R. Danielson (1989).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T.R.J., #1, p. 36.
- 6) Koichi Tsukamoto에 따르면, 어느 시기든 속옷은 그

- 기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으로 슈프트, 셔츠, 드로워즈, 니커즈 등 체온 유지와 보호, 위생적인 목적으로 쓰인다. 둘째, 인체의 형태를 교정(reform)하는 것으로 바디 셰이퍼(body shapers)라 부른다. 이것은 코르세트리와 같은 의미로, 브래지어, 밴도우, 코르셋 등 어떤 효과를 위해 인체를 재조정, 축소, 확대시킨다. 셋째,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를 변형(transform)시키는 것으로 정상적인 인체와 연관이 없다. 파딩게일, 후프, 벅슬, 패딩 등 인체의 윤곽을 왜곡시켜 강조 할 뿐만 아니라 과시와 지위 같은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넷째, 심미적인 감각이 있는 것으로, 매우 장식적이며 레이스와 프릴, 리본으로 장식한 티 가운, 슬립, 캐미솔, 페티코트 등이 이에 속한다. Koichi Tsukamoto (1982). *The Undercover Story*, New York : FIT, p. 6.
- 7) 코르세트리(corsetry) : 코르셋(corsets), 와스피 신처(wasp-waisted cinchers), 거들(girdles), 브래지어(brassières), 바디 수트(bodysuit), 컨트롤 타이즈(control tights) 등 미적이고 기술적인 효과로 여성 인체를 조절해주는 의복 전반을 의미한다.
- 8) Mary E. Roach & Joanne B. Eicher (1973). *The Visible Self :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pp. 93-94.
- 9) Marianne Thesander (1997). *The Feminine Ideal*, London : Reaktion Books Ltd, p. 11.
- 10) Catherine Bardey, *op. cit.*, p. 137.
- 11) Donna R. Danielson, *op. cit.*, pp. 84-85.
- 12) Elizabeth Ewing, *op. cit.*, p. 171.
- 13) Doreen Caldwell (1981). *And All Was Revealed*, New York : St. Martin's Press, p. 122.
- 14) Kate Mulvey & Melissa Richard (1998) *Decades of Beauty: The Changing Images of Women 1890s~1990s*, Hamlyn : Reed Consumer Books, p.166.
- 15) Donna R. Danielson, *op. cit.*, p. 44.
- 16) Karen W. Bressler & Newman, Karoline & Proctor, Gillian (1997). *Lingerie: A Century of Style*, New Jersey: Quarto Inc., p. 140.
- 17) Caroline Cox (2000). *Lingerie : A Lexicon of Style*, Boston : Periplus, p. 65.
- 18) Sarah Mower. "Learning Curves," Harper's Bazaar (October, 1994), pp.194-6, Valerie Steel(2001), *op. cit.*, p.173에서 재인용.
- 19) 파운데이션(foundation) : 코르세트리는 버스크, 강철, 줄라매는 이미지를 없애고 가볍고 유연한 소재의 '파운데이션 웨어'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이 용어는 1920년대에 시작하여 1950년대에 일반화되었다.
- 20) 스판덱스는 후에 일반적인 용어로 엘라스토크릭(Elastomeric), 엘라스테인(Elastane)이라 불렸다. 그것은 뛰어난 뉴 파워 넷(new power net)를 제공하였고, 상품명 라이크라(Lycra)라는 이름으로 시판되었다. 이 라이크라는 15%의 신장 능력이 뛰어난 합성 섬유와 85%의 회복 능력이 뛰어난 고무사로 중합된 폴리우레탄 섬유의 하나로, 인조 고무이며 천연고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연하고 편안하며 기존 천연 고무에 비해 3배나 강하고 회복력이 2배나 되었으며 가벼운 무게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열었다.
- 21) 코슬릿/코슬렛트(corselet/ corselette) :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복을 지칭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코슬릿으로 명하고자 한다. 1919년 미국에서 처음 나타난 코슬릿은 거들과 브래지어가 합쳐져 전체 인체에 중단되지 않는 선을 제공하였으며, 코르셋보다는 유연하였으나 서스펜더로 스타킹을 고정하는 것은 같다.
- 22) Valerie Steel (2001). *The Corset*, New Haven &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p. 162.
- 23) 서스펜더/가터(suspender/garter) : 거들이나 코슬릿 밑단에서 스타킹이 흘러 내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밴드나 리본을 의미한다
- 24) Gilles Néret(1988). *1000 Dessous: A History of Lingerie*, London : Taschen, p. 238.
- 25) Farid Chenoune (1999). *Beneath It All*, New York : Rizzoli, p. 120.
- 26) K. Bressler & K. Newman & G. Proctor, *op. cit.*, p.87.
- 27) Elizabeth Ewing, *op. cit.*, p. 167.
- 28) Jane Ferrell-Beck and Colleen Gau, Jane Farrell-Beck and Colleen Gau (2002). *Uplift*, Pennsylvania : Univ. of Pennsylvania Press, p. 144.
- 29) Christopher Page (1981). *Foundations of Fashions*, Leicester : Leicestershire Museum, p. 64.
- 30) Jane Farrell-Beck and Colleen Gaun, *op. cit.*, p. 147.
- 31) Peggy Moffit (1991). *Rudi Gernreigh*, New York : Rizzoli, p. 28.
- 32) 볼딩이란, 열가소성 소재인 폴리에스테르와 엘라스테인의 열 셋팅, 좋은 형태 유지, 끝마무리에 맞는 특성을 이용하여 인체에 자연스럽게 밀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속옷에서는 몰딩 방법을 이용하여, 완벽한 브래지어 앞판 혹은 컵뿐만 아니라 자연스런 엉덩이 형태를 제공하기 위해 팬티 거들과 코슬릿의 뒤 아래까지 연장되었다. Christopher Page, *op. cit.*, pp. 66-67.
- 33) Catherine Bardey, *op. cit.*, p. 146.
- 34) Elizabeth Ewing, *op. cit.*, pp. 172-173.
- 35) Marianne Thesander, *op. cit.*, p. 189.
- 36) Béatcice Fontanel (1997). *Support & Seduction: A History of Corsets and Bras* New York : Harry N.

- Abrams, p. 136.
- 37) Christopher Page, *op. cit.*, p. 66.
- 38) Kate Mulvey & Melissa Richard (1998). *Decades of Beauty : The Changing Images of Women 1890s~1990s*, Hamlyn : Reed Consumer Books, p.149.
- 39) Jane Farrell-Beck & Colleen Gau, *op. cit.*, pp. 164, 143.
- 40) K. Bressler & K. Newman & G. Proctor, *op. cit.*, p. 22.
- 41) Farid Chenoune, *op. cit.*, p. 136.
- 42) Caroline Evans & Thornton Minna (1989). *Women and Fashion*, London : Quartet Books, p. 55.
- 43) Béatrice Fontanel, *op. cit.*, p. 141.
- 44) Jane Farrell-Beck & Colleen Gau, *op. cit.*, p. 165.
- 45) Caroline Cox, *op. cit.*, p. 162.
- 46) Farid Chenoune, *op. cit.*, p. 160.
- 47) Claire Shaeffer (1994). *Fabric Sewing Guide*, Pennsylvania : Chilton Book Company, p. 508.
- 48) K. Bressler & K. Newman & G. Proctor, *op. cit.*, p. 10.
- 49) Farid Chenoune (1999). *op. cit.*, p. 156.
- 50) Catherine Bardey, *op. cit.*, p. 165.
- 51) K. Bressler & K. Newman & G. Proctor, *op. cit.*, p. 42.
- 52) Caroline Cox, *op. cit.*, p. 53.
- 53) Victoria's Secret (1997), 9, Catalog.
- 54) 김지연 · 전해정(2003). 이상미에 따른 여성 속옷 구성에 관한 연구 -20세기 전기를 중심으로-. 복식, 53(3), pp. 137-154.